

“광주공항 이전, 기부대양여는 허상... 정부 직접개입해야”

광주공항 이전 시민 토론회

광주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열린 광주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가 재정 투입과 같은 정부 직접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참여자치21은 9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광주공항 이전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제에 나섰다. 이어 변원섭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과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정전국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최 명예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산된 이전비용 손실액이 5조원 이상으로 집계된다”며 “정부가 일부 차액을 보전하더라도 미봉책에 불과하고, 기부대양여 방식을 통한 공항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군 공항 이전비로 10조 원이 든다면 현행법인 기부대양여 방식 아래에서 기존 공항부지를 얼마에 매각해야 수익성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부지 248만 평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실질 매각 비율로 잡아야 10조 원을 만들려면 평당 매각가가 약 800만 원에 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무안군에 약속한 7000억원도 시 재정 여건상 “결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광주시 부채는 지난해 기준 2조1675억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은 23.65%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그는 “광주 군공항 이전이 현실화되면 정부가 최소한 5조 원 이상 재정 부담



9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참여자치21의 광주공항이전시민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사

하는 수준의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이게 가능하려면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폐기하고 국가가 군공항 이전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토론자들은 기부대양여 실현 불가능에 초점을 맞췄다.

변 위원장은 “그동안 군공항 이전 논의는 ‘어디로 옮길 것인가’에 매몰돼 ‘어떻게 비용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피해 왔다”며 “추산된 이전비용 5조 7000억원도 2016년 기준이다. 실제로는 최소 10조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안공항을 호남권 허브공항으로 키우겠다는 정치구호도 허상이다. 광주공

항의 국제선 운용 시절 이용비율과 무안 공항의 위치를 비교해보면 ‘무안 허브공항론’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기 사무처장도 기부대양여의 비현실성을 짚으며 “정부가 주도하는 군공항 이전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광주보다 앞서 기부대양여 방식 군공항 이전에 합의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대구도 실질적 중단 상태”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1년 예산이 8조 수준에 불과한 광주시가 무안군에 1조원을 가까운 인센티브를 제안하면서까지 민간공항과 군공항 동시 이전 수용을 요청한 것 자체가 서글픈 이야기”라며 “중앙정부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즐기듯이 바라봐서는 안된

다”고 비판했다.

류 상임대표도 “군공항 이전은 정권교체, 경기변동, 지방재정 상황 등 외부요인에 취약해 확실한 국가 재정투입 없이는 추진 불가능”이라며 “복잡한 군사·환경·사회 갈등 요소까지 포함된 ‘국가안보 사무’인 만큼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광주 군공항은 1964년 송정리 공군부대 창설과 함께 현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민간공항은 1948년 동구 학동의 광주비행장 개항 후 1964년 1월 현 위치로 확장 이전했다. 민간·공공의 패키지 또는 시간차 이전 논의는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19년째 이어지고 있다. /오권철 기자



트로이대학교 자문위원 교수들과 함께 '전남 학생 글로벌 미래역량강화 연수' 사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K-에듀센터 글로벌 연수' 내실화한다 사후평가 통해 ESL 교육·산업탐방 확대 등 개선방안 마련

전라남도교육청은 미국 트로이대학교 내 '전남 글로벌 K-에듀센터'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연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더욱 내실화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전남 글로벌 K-에듀센터에서 운영한 '2025. 전남 학생 글로벌 미래역량강화 연수'에 대한 종합 사후평가를 트로이대학교와 함께 실시했다.

평가 결과 기존 자동차 산업 중심의 산업탐방을 IT 기업, 의료기관, 지역 커뮤니티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대하고, 트로이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들의 영어 능력 수준과 전공을 고려한 맞춤형 ESL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미국 인권운동 역사에 대한 이해 강화를 위해 사전교육 단계에서 영상 등 학습자료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K-웨이브 데이 등 부스 활동은 학생들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운영 방향을 조정해 학생 주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후평가는 향후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트로이대학교 자문위원인 구기용 교수와 이주한 교수가 참여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아울러, 트로이대 국제학생처장과 ESL디렉터가 참여해 ▲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 ESL 교육 및 활동 운영 성과 ▲ 향후 개선 과제 ▲ 2026년 프로그램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2025 전남 학생 글로벌 미래역량 강화 연수"는 지난 11월 9-22일 2주간 ▲ 국제적 언어역량(ESL) ▲ 미국 민주주의 역사 및 인권교육 ▲ 글로벌 리더십 ▲ 스포츠·직업교육 융합형 진로탐색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K-에듀센터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2026년 프로그램을 학생 맞춤형으로 체계화하고, 트로이대학교와 협력해 전남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과 진로 설계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광주 우치동물원이 2년 연속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의 '동물복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8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정기총회'에서 우치동물원을 동물복지 우수기관으로 선정,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는 올해 전국 14개 동물원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운영실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우치동물원은 ▲전국 동물원 복지 향상(국가 제2호 거점동물원 지정) ▲관리동물 동물복지 향상(고난도 수술 자체 진행 등) ▲시민대상 동물복지 인식 강화(시민대상교육프로그램 운영, 미디어 홍보 등) 등 3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광주 우치동물원, 2년 연속 동물복지 '우수'

동물원수족관협회, 전국 동물원 평가... 동물 의료복지 크게 향상

받았다.

우치동물원은 특히 제주도 화조원 원숭이 요격골 골절 수술, 사자 자궁축농증 수술, 거위 냉동요법(cryotherapy), 도마뱀 골절 수술 등 고난도 외과수술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동물 의료복지 수준을 크게 높였다. 이는 진료인력의 역량뿐 아니라 복지 중심 운영체계의 완성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우치동물원 진료팀의 국제 성과에도 주목했다. 진료팀(정하진·강주원 수의사)은 지난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동물원수족관협회(SEAZA) 국제 컨퍼런스에서 세계 최초 육지거북 개폐형 복감 수술과 국내 최초 뱀 정관수술 사례를 발표해 국제적 관심을 받았으며, 케이(K)-동물원 문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는 이같은 공로를 인정해 우치동물원 진료수의사들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성창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2년 연속 우수기관 수상은 우치동물원이 돌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동물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진

료인력의 전문성이 전국 동물원의 의료복지를 높이고, 국제적으로도 한국 동물원의 위상을 강화한 점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는 전국 14개 동물원·수족관이 참여하는 환경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내 동물원의 보전·복지·연구·교육을 총괄하며 동남아시아동물원수족관협회(SEAZA)·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 등 국제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송현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주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예산 '곤두박질'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 2023년 대비 15% 수준 급하락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증진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의 관련 사업 예산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교육시민연대에 따르면 2026년 광주시교육청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 예산은 2290만원으로 2023년 1억 5340만원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2024년은 1억3300만원, 2025년은 8176만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증진 조례를 제정했으며, 광주시교육청 역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2023년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40.9%이고, 부당대우·인권침해 경험 응답자가 64%로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연대는 "광주시, 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시민사회가 2015년 체결한 청소년 노동인권 협약은 사문화되었다"며 "현장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축소된 예산안을 시의회에 넘긴 것은 협치를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전민규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